연세경제연구 제 I 권
Yonsei Economic Studies, Vol. I (September 1994)

白南雲의 學問과 思想

方 基 中

본고는 일제하 延專 商科 교수로서 延專 經濟學風·國學風을 수립하고 한국 맑스주의 역사학을 개척함으로써 韓國近代思想史·學術史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東岩 白南雲의 思想과 學問을 그의 '탄신 10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조명한 글이다. 그는 일제하 한국 맑스주의가 도달한 가장 높은 學問 體系와 認識 水準을 보여준 인물로서, 암울한 民族現實을 극복하기 위한 實踐의 일환으로서 일제의 한국 강점을 학문적으로 옹호한 官學에 대항하여 科學的 國學硏究의 진흥에 헌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學問과 思想에 대한 역사적 검토는 일제하 정치적 사회경제적 民族現實과 이에 조응하여 전개된 思想 動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延世學風의 系統을 세우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I. 머 리 말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강점 아래 延禧專門이 民族私學의 전통을 확립하고 항일적 國學硏究 學風을 형성한 데에는 여러 先覺者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異彩를 띤 이는 일제하 역사학·경제학계의 巨擘으로 맑스주의 입장에서 韓國近代學術史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東岩 白南雲(1894~1979)이다. 1925년 4월 상과 교수로 부임하여 1938년 3월 일제에 의해 투옥될 때까지, 그는 동료 李順鐸, 盧東奎 등과 함께 연전 상과의 맑스주의 國學硏究 學風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주의 학풍을 주도한 문과 교수 鄭寅普, 崔鉉培 등과 더불어 延世學風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서로 깊은 인간적 교류를 맺은 東岩과 爲堂은 일

연세대학교 사학과. 본고는 1994년 5월 26일 經濟硏究所가 주관한 '東岩 白南雲 교수 탄신 100주년 기념 강연'에서 필자가 발표했던 원고를 보충한 것이다. 그 내용은 拙著,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2) 제1, 2장을 요약한 것인데, 차제에 東岩의 학문형성 과정에 대해 미진하게 처리했던 몇 가지 사실을 脚註로써 보충하였다.

제 식민사학이 횡행하는 1930년대 反植民史學의 두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한국 현대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東岩의 학문과 업적은 분단이라는 시대상황 때문에 延世學風과 단절되어 왔다. 근년 延專 國學 傳統의 진흥이 거듭 제기되는 터이지만, 이에 바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전 시기의 學問的 遺産을 엄정한 과학적 정신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東岩의 학문이 그러한 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연전 시기의 학문적 동향은 일제하 한국의 知的 風土, 思想的 動向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단지 특정 대학의 학문적 전통을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韓國 近代知性史, 近代思想史의 한 내면을 밝히는 역사적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전 상과의 지적 유산을 체계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東岩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고 있는 經濟硏究所의 일련의 작업은 그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

II. 學問世界의 形成

東岩은 1894년 2월 11일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에서 白樂奎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집안은 대대로 朱子學 연마와 禮學的 生活觀을 중시한 老論 계열의 鄕班家였고, 그의 부친 백낙규 역시 노론 畿湖學派의 학통을 이은 宋秉璿 문하의 儒者였다.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소년기를 보낸 東岩은 부친이 운영한 私塾(書堂)에서 엄격한 봉건적 朱子家禮 교육과 漢學을 배우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그의 성격 및 행동양식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그는 封建的 意識世界에서나마 일제 침략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부친으로부터 民族現實에 대한 자각과 排日意識을 체득하였다.

東岩은 1912년 水原農林學校 진학을 계기로 봉건적 세계관을 벗어나 近代的 世界觀을 형성하였다. 수원농림학교는 일제가 식민지 수탈 기반으로 한국농업을 지배하기 위해 설립한 관립학교로서, 농촌 현장에서 收奪農政을 실천할 한국인 말단 관리·농업지도자 양성이 그 교육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근대 자연과학적 소양과 資本主義 農學·經濟學의 기본이론을 습득하였고, 특히 이 시기의 농촌 실상을 생생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일제 강점 이후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朝鮮農業'의 기본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가 민족현실에 고뇌하며 학문에 뜻을 품은 것은 이때였다. 그는 1915년 졸업과 동시에 江華公立普通學校에 부임하여 교편을 잡다가 1917년 江華森林組合 技手로 전직되자

그 이듬해 사직하고 1918년 10월 일본유학 길에 올랐으며, 1919년 3월 東京商科大學의 전신인 東京高等商業學校(1920년부터 대학 승격)에 입학하였다.[1]

東岩이 유물사관 입장에서 '朝鮮經濟史' 체계를 바로잡고자 결심한 것은 동경상대 재학시기인 1920년대 초반이었다. 이는 그의 사상과 학문세계의 根幹이 대학시기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동경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도 극단의 극기생활, 긴장한 학구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념이 없었다"는 회고에 잘 나타나 있듯이, 대학시절 치열한 學問的 思想的 遍歷을 통해 그는 평생 견지하게 되는 世界觀·學問觀을 형성하고 學問的 課題를 설정하였다.[2] 그것은 학문상의 민족적 主體意識을 바탕으로 맑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민족현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朝鮮研究'의 진흥으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東岩이 동경상대에 입학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거대한 격동기였다. 러시아혁명이 성공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약소민족의 民族運動이 광범하게 전개되었고, 한국에서도 민족독립의 기운이 3·1운동으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도 나타나 이른바 大正民主主義運動이 대중의 정서를 사로잡는 가운데 自由主義 思潮와 社會改造 주장이 유행하였고, 또한 勞農運動과 더불어 社會主義思想이 발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그가 동경상대에 재학하였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동경상대는 '明治時期' 이래 일본자본주의에 봉사하는 대표적인 관학이었지만, 美濃部達吉, 福田德三, 上田貞次郎 등 大正民主主義運動 주창자들이 재직하고 있어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학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학풍을 형성하여 福田德三을 중심으로 社會政策學派, 歷史學派 經濟學의 본산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반맑스주의자로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부르주아 사회학·경제학을 대표하며 일제 파시즘 이론가로 활약한 高田保馬가 東岩의 본과 지도교수로서 사회학과 경제학사를 담당하였다. 요컨대 동경상대 학풍은 크게 보아 일본자본주의 발달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社會改良主義 입장의 부르주아 사회과학이었다. 이러한 교수진과 학풍 속에서 東岩은 부르주아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학문적 기초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한 歷史學, 經濟史를 자신의 연구 영역으로 삼게 되었다.[3]

---

1) 東岩은 渡日 직후부터 山本實彦과 인연을 맺고 그로부터 여러 면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東岩을 山本에게 소개한 이는 통감부 시기 내무국장 石塚英藏의 屬官이었던 山本의 實弟 山本重彦과 친교가 있는 어느 친구였다고 한다(「被告人 白南雲訊問調書 第一回」, 『李順鐸外二人不起訴事件書類綴』〈이하 『書類綴』 생략〉).

2) 필자는 拙著에서 東岩이 대학시절 조직활동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는데, 그는 一家인 白南奎의 권유로 東京市朝鮮人基督敎靑年會에 가입하였고, 東京商大 조선인 유학생 조직인 星友會 幹事를 지낸 바 있기에 바로 잡는다(「被告人 白南雲訊問調書 第一回」).

3) 東岩은 자신이 역사학에 본격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본과 1학년 시절 經濟史와 文明史 강의를 담당한 三浦新七의 '歐洲古代文明史' 강좌를 청강하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感想錄」).

그러나 東岩은 이러한 母校의 學風을 자신의 학문관으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비판적으로 소화하여 이로부터 자신의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대학 재학시 이미 맑스주의에 공명하여 이를 자신의 學問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모교의 학풍을 거부하고 맑스주의를 수용하게 된 배경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민족 지배에 놓인 조국의 민족적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투철한 實踐的 問題意識에 연유하였다.

조선후기, 한말을 거치면서 누적되어온 사회적 모순은 일제강점 이후 민족적 모순과 중첩되는 가운데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地主制를 중심으로 한 農業·農民問題는 그 핵심이었다. 지주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한 일제는 한국의 지주·자본가층을 식민통치의 협력자로 삼는 한편 폭력적인 資本移植을 꾀함으로써 한국을 일본자본주의의 원료공급지, 상품시장, 노동력수탈지라는 移植資本主義體制로 철저히 재편시켜 나갔다. 19세기 이래 성장한 한국의 內在的 자본주의 발전의 싹은 왜곡되었고,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농민층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즉, 일제하 民族問題는 단순한 민족해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 계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社會改革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인식방법이나 타개방안의 차이에 따라 해방된 '新國家'의 建設 展望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러한 민족현실에 고뇌하고 특히 농민적 민중적 입장에서 민족문제·계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知識靑年들은 많은 경우 그 打開策을 사회주의 이념, 맑스주의 경제학에서 찾았다. 각종 자본주의 이념, 부르주아 경제학이 世界資本主義體制·帝國主義體制의 일환으로 형성된 일제의 한국 강점과 그 수탈논리를 옹호하고 학문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하나의 時代思潮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4]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성장하고 農林學校 시절 농촌의 참담한 실상과 일제 수탈농정의 기만성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東岩 역시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그가 모교의 학풍에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歷史學派 經濟學이 일제의 한국 강점과 식민 지배를 학문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帝國主義 學風이라는 것을 자각하였기 때문이었다. 封建制缺如라는 날조된 역사적 사실로부터 일제 침략을 '朝鮮의 資本主義的 發展', '産業革命'의 계기로 미화하고 합리화한 韓國社會停滯性論이 그것이었다. 자신의 스승인 福田이 그 선구적 주창자였다. 당시에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사회경제사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이 근거없는 주장이 큰 영향을 끼치면서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학문

4) 이는 당시 중국을 비롯한 弱小民族社會에 일반화된 세계사적 현상이지만, 더불어 한국에서는 부르주아민족주의 이념에 의해 전개된 3·1운동의 좌절이 새로운 民族解放運動 理念, 勞農運動의 理念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유포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적 편력 위에 東岩은 모교의 학풍과 대립하고 있는 맑스주의 철학과 경제학에 심취하였고, 일제 침략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맑스주의의 唯物史觀方法論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5] 나아가 '朝鮮硏究'는 '朝鮮人'의 손에 의해 민족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문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문상의 主體的 입장을 확립하고 '朝鮮硏究'의 진흥과 '朝鮮經濟史'의 체계화를 필생의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당시 東岩의 맑스주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그는 맑스주의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이 처한 현실문제를 계급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극단적인 階級主義는 반대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점을 노예적 지배와 하등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철저한 反帝 民族意識을 견지하는 가운데 전 민족적 과제인 민족해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社會革命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대학시기부터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민족해방운동의 양대 세력인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이 상호 戰線統一을 이루어 일제와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귀국 이후 그의 학술활동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한편 東岩이 일본에서 접하고 학습한 맑스주의 이론과 인식 수준은 계몽적 단계에 머무는 정도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맑스주의 원전 번역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해설서나 잡지를 통해 맑스주의 이론이 보급되었다. 학적 체계를 갖춘 맑스주의 科學, 學派가 성립될 수 있는 토대는 아직 미약하였고, 더욱이 유물사관에 입각한 본격적인 歷史硏究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맑스주의를 자신의 학문관으로 삼았고, '朝鮮經濟史' 연구를 필생의 과제로 삼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史觀의 정리와 기본적인 硏究視角의 정립에 불과하였다. 유물사관을 적용하여 '朝鮮經濟史' 전 체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론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925년 4월 延禧專門 商科 교수로 부임한 東岩은 朝鮮事情調査硏究會에 참여하여 유학 당시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조선경제사'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5) 東岩은 예과시절 동경상대에 출강한 學習院 교수 紀平正美의 哲學槪論 강의(해겔철학)를 청강하면서 辨證法的 世界觀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맑스주의 경제학에 심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세간에 화제가 된 福田德三과 맑스주의자인 京都帝大 교수 河上肇 간의 價値論爭을 탐독하는 가운데 河上肇의 입장에 공명하고 맑스주의 이론 학습에 정진하였다. 나아가 高田保馬의 經濟學史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맑스주의 이론에 더욱 천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朝鮮社會經濟史'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稷'나 '奴隷制度'를 주제로 졸업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지도교수인 高田이 병으로 사임하게 되어 논문을 쓰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世界觀·學問觀의 확립은 일제의 朝鮮 強占과 참담한 農村現實의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朝鮮民族의 歷史的 自己批判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과 같이 實踐的 問題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被疑者 白南雲訊問調書 第一回」, 「感想錄」, 「被告人 白南雲訊問調書 第二回」).

그가 認識論 및 社會科學 영역에서 맑스주의 이론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이를 역사학 방법론으로 구체화한 것은 대개 1920년대 후반이었다. 이 시기에는 맑스, 엥겔스, 레닌 등의 저작이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경제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두루 맑스주의 원전을 탐독하며 唯物辨證法과 唯物史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6] 특히 그는 레닌의 업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레닌의 반영론과 변증법 이론을 수용하여 이를 자신의 科學觀으로 정리하였고, 레닌의 國家論과 帝國主義論, 그리고 農業理論 등을 토대로 일제하의 민족현실을 파악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와 같은 치열한 이론적 모색과 자료섭렵을 거친 뒤 東岩은 193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新興科學, 곧 맑스주의 과학을 창도하며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1933년 『朝鮮社會經濟史』(東京, 改造社)를 출간함으로써 韓國近代史學史의 커다란 획을 그었다. 이 저서의 간행은 곧 한국 맑스주의 역사학의 성립을 의미하였다. 말하자면 東岩의 학문과 사상은 1920년대 후반 연전 상과를 기반으로 확립되고, 大恐慌期에 전면 開花한 셈이었다. 그것은 이 시기 일제의 수탈 강화, 이에 따른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사상적 변동을 배경으로 진행된 항일적 맑스주의적 延專 商科 學風의 수립 과정이자 韓國學術界의 새로운 전환 과정이었다.[7]

Ⅲ. 學問과 思想

1. 學問觀과 社會科學 方法論

대공황기 '朝鮮研究', '朝鮮認識'의 진흥을 위한 東岩의 학술 활동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과학 방법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이론적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경제사'에 대한 연구성과의 정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민족현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學術運動의 전개였다. 여기에서는 앞의 두 측면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8]

---

6) 당시 그가 탐독한 著作들은 『資本論』, 『剩餘價値學說史』, 『도이치 이데올로기』, 『經濟學批判』, 『賃勞動과 資本』, 『中國·印度論』, 『反듀링論』, 『家族 私有財產 및 國家의 起源』, 『唯物論과 經驗批判論』, 『國家와 革命』, 『哲學노트』 등 맑스, 엥겔스, 레닌 등의 저작과 마자르, 비트포겔, 郭沫若, 河上肇 등의 研究著書였다(「被疑者 白南雲訊問調書 第一回」).

7)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에 대해서는 洪性讚,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본서 소수) 참조.

8) 셋째 측면에 대해서는 拙著, 앞의 책과 洪性讚, 위의 논문 참조.

東岩은 1930년 「社會學의 成立 由來와 任務」를 「朝鮮日報」(1930. 8. 20~24)에 발표한 이래 연이어 각 과학 분야의 실정을 비판적으로 논한 일련의 글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科學이 담당해야 할 과제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과학 일반론에서부터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등 社會科學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9] 이 일련의 작업에서 그는 대공황기 사회과학계 상황을 역사인식, 사회인식상의 方法論—世界觀, 學問觀—을 둘러싸고 混沌과 淸算이라는 두 조류가 대립하고 있는 '批判的 淸算期'로 규정하였다. 혼돈은 각종 관념론적 자본주의적 과학의 위기와 반동화를, 그리고 청산은 맑스주의 과학의 발전을 뜻하였다.

東岩이 대공황기 학계의 성격을 이와 같이 파악한 것은 이 시기의 사회적·사상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대공황기 일제는 軍國主義 파시즘체제를 준비하면서 만주침략을 도발하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의 運動界, 思想界, 學界 내부에는 일제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개량화 내지 반동화 경향이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민족협동전선 단체였던 新幹會가 해소되는 가운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 세력간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또한 일제의 사상통제 속에 自由主義나 社會改良主義 사조는 점차 일제 파시즘체제에 봉사하는 관제 이데올로기로 전락해 갔다. 이 경향은 학계에도 반영되어 흔히 '純粹學問'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官學 아카데미즘'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당면하여 東岩은 각종 부르주아 思想과 科學으로서는 더 이상 민족문제, 민족해방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東岩은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부르주아 과학의 인식 기반을 개별 특수성, 특히 民族性과 우연성을 중시하는 觀念論的 特殊史觀, 형이상학적 관념론이나 不可知論的 實證主義를 취하는 인식방법, 社會進化論과 自然法主義 및 개인적 자유경쟁주의에 기초한 自由主義社會觀 등으로 일반화하고, 이에 입각하고 있는 부르주아 과학, 학문의 성격을 크게 네 가지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 첫째 과학의 존립근거인 사회 현실생활과 단절된 관념적 絶對世界나 人間性 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학문간의 內面的 統一이 단절되어 인식 방법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셋째 인류사의 보편사적 계급적 발전을 부인하는 동시에 학문의 黨派性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넷째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 제국주의체제의 영속성을 합리화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라는 점 등이었다. 더불어 제국주의 단계에서 독일 역사학파를 중심으로 출현한 社會改良主義, 國民經濟學, 經濟史觀 등은 고전적 부르주아 과학의 아류이며 본질은 동일하다고 하여 그는 대학을 통해 연결된 자신의 學脈

9) 「科學 發展의 歷史的 必然性」(『東方評論』 2, 1932. 1), 「朝鮮史觀 樹立의 提唱」(『經濟硏究』 4, 1933. 2), 『朝鮮社會經濟史』(1933. 9) 緖論, 「朝鮮經濟史의 方法論」(『新東亞』 3-2, 1933. 12), 「理論經濟學의 再建」(『中央』 2-10, 1934. 10)

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東岩은 科學—나아가 광의의 學問—을 인류사회의 생활요구에 적응한 경험의 組織的 總體라고 보았다. 즉, 과학은 생활을 목적으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경험을 질서화하고 계획적으로 재현하여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의 進路를 조성하고 촉진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 넓은 의미에서 生產力의 한 요소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활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생활과정의 생물적 통일체인 知覺과 行爲라는 경험의 二重性에 입각한 經驗批判의 과정이 과학이 성립하는 근본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과학의 본질을 사회적 生產關係의 반영물이라고 규정하였다. 특정 시기의 특정 과학은 그 시기의 객관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같은 의미에서 科學者의 존재 역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라고 파악하였다.

과학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 위에 東岩은 과학에는 크게 法則性, 歷史性, 階級性 등의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곧 맑스주의 과학이론의 기본 관점이었다. 법칙성이란 경험비판 道程의 논리적 보편화로서, 혼돈된 제현상으로부터 因果關係의 법칙을 추상화한 것을 뜻한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현상과 현상 간의 필연적 의존관계로, 맑스주의 창시자들이 말한 辨證法的 相互作用을 말한다. 역사성은 자연과학과 달리 역사적 적응성을 갖는 社會科學의 법칙성을 말한다. 사회과학의 법칙은 한 사회형태가 다른 형태로 전화 발전해 가는 과정의 법칙이다. 따라서 이 법칙은 현재 사회 출현의 歷史的 必然性인 동시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전환되어 갈 미래사회의 역사적 필연성을 논증하는 것이라 하였다. 계급성은 계급사회에서 과학은 계급적 이해에 따라 계급적 통제하에서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즉, 科學—科學的 思惟—의 발달이 지배양식을 파멸시킬 경우 지배계급은 과학을 탄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東岩은 궁극적으로 엄정한 과학의 발흥은 각 시대의 발달과정에서 과학 발전을 대표하는 進步的 階級이 장래 사회를 위한 變革을 착수하는 한편 精神的 解放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과학 발전의 역사적 필연성과 과학의 당파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또한 한때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였던 부르주아 과학이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반동화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無產階級의 黨派性을 대변하는 맑스주의 과학만이 유일한 '新興科學'이라고 규정하고, 그 신흥과학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진정한 史學이 허구의 史眼을 叱正하는 것과 같이, 科學的 國家論이 전통적 國家哲學을 파괴하는 것과 같이, 自然科學이 전통미신을 타파하는 것과 같이, 新興社會學은 실로 사회 대 개인, 사회 대 사회의 전반적 社會關係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현실사회의 矛盾關係를 폭로하고 統制의 觀念的 根據를 비판하며 高級的 共同社會의 실천적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역사적 임무라 한다.[10]

2. 歷史認識과 韓國經濟史의 體系化

東岩은 사회현실과 독립된 순수학문의 존재를 부정하고 학문의 실천적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역사인식, 역사연구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朝鮮史'가 실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학사적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사 연구의 당면 목표는 民族史에 대한 自己批判과 함께 "미래의 우리들을 전망"할 수 있는 實踐的인 歷史學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사학의 실천성이란 다름아닌 일제의 강점에 대해 절망을 모르는 적극적인 "更生의 길"을 발견하여 민족해방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역사관과 방법론을 『朝鮮社會經濟史』 緖論과 總結論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申采浩의 『朝鮮上古史』 總論과 더불어 일제하 反植民主義 歷史學이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史論이었다.

東岩의 역사학은 1920년~1930년대 일반화된 한국사인식의 기본 성격을 역사의 보편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特殊史觀으로 파악하였다. 즉, 역사에서의 우연성을 중시하고 역사의 원동력을 인간의 自由意思에서 찾는 관념론적 입장을 취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상적 특수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특수사관을 자본주의를 영원불변한 사회체제로 파악하는 부르주아 역사학의 공통된 본질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사관에 의해 필연적으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낙후되고 타율적인 민족적·문화적·경제적 특수성이 한국사의 본질로 강조되고 한국사의 보편적 발전의 결여라는 '朝鮮觀'이 상식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東岩은 특수사관의 흐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여 비판하였다. 하나는 일제의 한국 강점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官學者의 한국사연구, 다른 하나는 일부 한국인의 한국사연구였다. 이 가운데 東岩이 일차적인 타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 일제 관학이었다. 일제 관학은 학풍에 따라 國史學派, 文化史學派, 歷史學派 등 여러 계열로 나뉘어지는데, 그는 그 어느 것도 순수학문, 실증주의라는 似而非 合理主義를 내세워 한국사를 인멸시키고 식민지 침략과 수탈을 합리화하고 있는 官製特殊性論으로 간주하였다. 국사학파와 문화사학파는 日鮮同祖論, 滿鮮史觀, 任那日本府, 支那文化輸入說 등을 날조하여 고대 이래의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민족말살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일제 관학의 첨병이었다. 또한 이 계열은 1920년대 중엽 조선총독부 정책으로 추진된 『朝鮮史』 간행을 주도하면서 한국사의 타

10) 白南雲, 「社會學의 成立 由來와 任務(完)」, 「朝鮮日報」, 1930년 8월 24일자 참조.

율성과 민족적 열등감을 부식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역사학파의 특수성론은 福田德三이 封建制缺如論과 土地共有制論을 날조하여 한국사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래 더욱 발달하였는데, 특히 이를 계승한 관학자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京城帝大를 거점으로 일제하의 한국경제를 産業革命의 躍進으로 예찬하고 식민지 강점을 자본주의화의 은혜로 선전하기 위한 작업으로 조직적인 韓國社會經濟史 연구를 추진하였다. 東岩은 자신의 과제와 관련하여 특히 역사학파 비판에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東岩이 또 하나의 비판 대상으로 삼은 한국인의 역사학은 민족주의 계열의 역사학, 특히 1920년대 申采浩와 崔南善의 檀君朝鮮論이었다. 이들의 단군조선론은 서로 그 내용과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정신적 기반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東岩은 이들의 한국사인식을 외관적 문화양상을 기축으로 삼아 단군으로부터 韓民族의 초월적 절대적인 관념을 연역하여 民族의 特殊性을 강조하는 관념론적이고 국수주의적인 特殊文化史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 스스로 특수성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更生의 길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奴隸化의 길이라 하여, 그러한 단군인식으로는 階級, 民族, 國家의 본질 등을 이해할 수 없고 민족해방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東岩은 민족사의 통일적 발전과정을 밝히고 민족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科學的인 歷史觀과 方法論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唯物史觀, 즉 史的 唯物論에 입각한 맑스주의 역사학의 제창이었다. 그는 『朝鮮社會經濟史』 緖論 제1장 朝鮮經濟史方法論 첫머리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朝鮮史硏究는, 바로 과거에 있어서 歷史的 社會的 發展의 변동과정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究明하는 동시에 그 實踐的 動向을 理論化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류사회의 일반적 운동법칙으로서 史的 辨證法에 의해 그 民族生活의 階級的 諸關係와 아울러 社會體制의 歷史的 變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그 法則性을 일반적으로 抽象化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史的 唯物論의 역사이론은 주지하듯이 인간역사의 발전과정을 階級鬪爭의 歷史로 파악하고 계급투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合法則性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및 그 변증법적 해결이라는 社會構成體(social formation)의 계기적 발전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東岩이 위에서 말한 방법론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적 유물론의 階級鬪爭論과 社會構成體論이었다.

東岩은 사적 유물론의 역사이론만이 혼돈에 빠진 낡은 특수사관을 청산하여 새

로운 '朝鮮觀'을 수립하고 나아가 민족해방의 길을 실천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민족생활의 발전사를 사회구성의 토대가 되는 經濟構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해명하는 것을 한국사 연구의 기본과제로 삼았다. 즉, 한국민족의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는 經濟組織·生産關係의 내면적 구성과 모순관계, 그 이행 과정을 上部構造와 상호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一元論的 法則性을 해명하여 한국사 역시 세계사적 보편사로서의 階級鬪爭史였음을 밝힌다는 것이었다.

東岩의 歷史認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가 한국사의 보편적 발전, 그 발전의 內在的 必然性을 철저하게 견지한 점이었다. 그 스스로 "歷史法則의 不退性"이라고 표현한 바, 그는 역사과학에서 유일한 특수성은 時代的 特殊性 뿐이라 하여 보편성을 벗어난 초시대적 특수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이는 그의 韓國史 發展段階論 구성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점이 그가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 나아가 민족적·문화적·지리적 특수성을 주장하는 각종 特殊史觀의 特殊性論을 거부하는 인식론적 근거였고, 식민지 현실에 절망을 모르고 비타협적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사상적 기반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유물론적 역사인식 저변에서 끊임없이 한국사인식의 실천성을 충동한 民族主體的인 관점이었다. 그는 사적 유물론의 역사관과 방법론에 철저하였지만 이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일부 맑스주의자들이 科學이란 이름 아래 한국사인식의 民族的 主體性을 몰각하거나 民族的인 旗幟 일체를 국수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극단의 階級主義的 偏向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을 비판한 것은 그들의 인식방법과 사상적 본질이었지 그들의 비타협적 民族意識까지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東岩의 階級觀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대전제로 삼고 있었고, 이 점에서 그의 역사인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민족적이었다.

東岩의 한국경제사 체계는 東京商大 재학중에 구상되고 오랫동안의 이론적 검토와 자료섭렵을 통해 다듬어졌지만, 그 전모는 그의 첫 저서인 『朝鮮社會經濟史』(1933년 간행)와 첫 저서의 속편인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1937년 간행)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첫 저서 서문에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구성의 발전과정을 原始共産制社會, 奴隷制社會(三韓~三國時期), 아시아적 封建制社會(三國末期~朝鮮時期), 移植資本主義社會(日帝下) 등 크게 네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한 최초의 한국사 時代區分이었다. 그는 또한 朝鮮後期·韓末 아시아적 봉건제의 붕괴 과정과 資本主義萌芽 형성 문제를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한국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과정이라고 하는 韓國思想史의 체계화도 구상하였다.

『朝鮮社會經濟史』는 서론 3장, 본론 3편 14장, 총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東岩은 여기에서 씨족제를 기반으로 하는 원시공산제사회의 존재와 한국 최초의 계급사회인 노예제사회의 전구조를 해명하여 韓國史의 起源과 그 奴隸制的 發展過程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1930년대 초까지 맑스주의 역사학계에서 일반화된, 이른바 '아시아적 生産樣式論'에 입각하여 동양사회는 노예제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로 직접 이행하였다는 견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階級國家, 民族國家 成立史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계급적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국가를 超階級的 永續的인 共同體로 인식하는 資本主義 國家論과 파시즘적 국가관, 그리고 민족을 초역사적으로 관념화하여 숭배하는 民族主義 民族觀 등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土地國有制論을 통해 일제 관학자들의 土地共有論의 허구를 폭로하여 정체론적 한국사인식을 청산하고, 土地調査事業을 近代的 土地私有制의 확립으로 미화하고 있는 일제 收奪農政의 학문적 기반을 철저히 비판하였다.

전 13편 92장의 방대한 체계로 구성된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는 신라후기에서 고려시기에 이르는 봉건제사회의 발전과정과 사회경제구조를 해명한 것이었다. 東岩은 여기에서 土地國有制論과 農奴經濟論을 입론의 근거로 삼아 특히 高麗時期를 한국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아시아적 봉건제사회였다고 주장하였다.[11] 그는 봉건제사회의 존재와 그 아시아적 특수성의 실체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해명하여 유럽 내지 일본형과 구별되는 아시아적 봉건제의 '朝鮮型'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의 합법칙적 발전을 논증하고, 福田德三 이래 일본 관학자들이 주장한 封建制缺如論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하였다. 그가 絶對主義的 封建制로 표현한 朝鮮時期 이후에 대한 검토는 일제 탄압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위 두 저서는 韓國社會經濟史에 관한 최초의 통사적 작업이었다.

한편 본격적인 연구성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東岩은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는 조선후기 이래 解體段階에 접어들었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1894년을 분기로 정치적 사회경제적 분화의 촉진, 자본주의 맹아의 형성, 自由思想의 발달, 신분해방 등에 의해 봉건제사회의 해체가 더욱 촉진되고 新興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하는 등 일정하게 內在的 資本主義化 과정이 진전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내재적 발전은 일제 경찰국가의 폭력성과 移植資本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어 일제 강점하 한국의 社會構成은 일본 자본주의와 완전히 통일된 移植資本主義社會로 재편되었으며, 대공황기 이후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에 따라 이식자본주의는 '自力更生' 이데올로기 아래 統制經濟를 동반한 獨占的 段階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

東岩은 이와 같이 한국의 독자적인 내재적 자본주의화 과정의 존재를 주장함으

11) 東岩의 高麗研究論에 대해서는 이병희, 「미완의 조선봉건사회론」(『역사와 현실』 12, 1994) 참조.

로써 조선후기·한말을 정체된 사회로 부각시켜 한국 강점을 資本主義 産業革命의 계기로 선전하는 일제 관학자들의 植民地美化論을 거부하고 그 近代化 施惠論理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移植資本主義論에 입각하여 1930년대 일제의 統制經濟政策의 欺瞞性을 비판하고 민족해방의 진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식자본주의체제의 성격상 당시 한국사회에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非資本主義的 社會解放을 전망하는 民族解放의 달성이 우리 민족이 당면한 일차적인 정치적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Ⅳ. 學術史的 意義

東岩은 사적 유물론의 계급투쟁론과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한 韓國經濟史方法論을 처음으로 체계화함으로써 韓國史認識의 새로운 地平을 열었다. 한국 맑스주의 역사학·사회과학의 개척자로서 그는 韓國近代史學史·學術史의 한 획을 그었다. 철저하게 一元論的 普遍性과 內在的 發展의 必然性을 견지한 그의 역사학에 의해 비로소 한국사를 세계사적인 시야에서 법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그는 社會構成의 內面的 構造와 民族生活 및 國家의 發展史를 계급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사 발전의 주체인 民族과 階級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이로써 영웅사관과 관념론적 신비주의에서 탈각하지 못하고 있던 민족주의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反植民主義 歷史學의 地盤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적 전환을 통해 歷史認識과 民族解放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歷史學의 實踐性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요컨대 그의 학문은 농민적 민중적 입장에서 일제하 민족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解放思想, 新國家建設思想의 투영이자 그 실천이었다.

東岩 학문의 학술사적 의의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학문의 眞面目은, 그가 맑스주의이론을 祖述하지 않고 엄정한 과학적 자세와 투철한 학문적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前人未踏의 방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의 합법칙적 발전과 그 단계적 성격을 이론화함으로써 일제 관학자들의 각종 植民主義 韓國史認識을 그 근저로부터 극복한 점에 있었다. 토지사유제의 전개를 내포한 토지국유제론, 농노제에 기초한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론, 봉건제사회해체론과 實學思想論, 자본주의맹아론과 이식자본주의론에 입각한 韓國資本主義發達史論 등은 일제 관학자들이 끊임없이 주창한 韓國社會停滯性論의 허구를 타파하고 향후 한국경제사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학문적 성과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1930년대 중반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停滯論的 敎條的 맑스주의 한국사인식을

거부하고 內在的 主體的 입장의 한국사인식의 '典型'을 확립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사 차원에서 볼 때 東岩 역사학에는 또한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朝鮮社會經濟史』에서 제시한 발전단계론이 중요한 論理的 矛盾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서양의 고전적 형태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설정된 노예제사회가 아시아적 특수성이 전면화된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로 이행하였다고 하는 社會構成 移行의 논리적 모순이 그것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였다. 하나는 그가 아시아적 生産樣式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맑스주의자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停滯的 아시아觀을 거부하면서도, 그는 아시아사회의 정체성을 先驗的으로 인정한 이 이론의 영향으로부터 끝내 벗어나지 못하였다.[12] 다른 하나는 '租稅 = 地代論'에 입각한 맑스의 아시아사회 토지국유제론이 한국 봉건제사회에 실재한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가 아시아적 생산양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는 봉건제사회 성립의 동력으로서 생산력 발달에 의한 土地私有制의 형성과 전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제의 역사적 의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토지국유제 속에 형해화시켜 버리고 말았다. 요컨대 그의 봉건적 토지국유제론과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론은 한국 봉건제사회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東岩 역사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는 그의 古代階級國家發生史論의 한계이다. 즉, 그는 원시사회 해체, 노예제사회 형성의 생산력 기반을 이루는 靑銅器文明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계급국가 성립을 鐵器文明의 형성으로

12) 특히 東岩은 193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적 생산양식사회 =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론이 부정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自說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면적으로 아시아적 생산양식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해방 후 공식화되어 그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원시사회에 계기적으로 나타나는 過渡期社會로 상정하고, 발전단계를 原始社會→아시아적 社會(共産性初階級社會)→아시아적 奴隷制社會→아시아적 封建制社會→封建性 資本主義社會로 재조정하였다(拙著, 166~176쪽, 308~311쪽). 그런데 東岩은 1935년 11월 29일 연전 상과 經濟硏究會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아시아적 生産樣式 問題의 朝鮮史 適用에 관한 批判」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러한 고민과 자기 수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기에 간략히 소개한다. 강연 초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재판부 訊問調書에서 그가 답변한 강연 내용에 의하면 그 要旨는 크게 네 가지 였다. 첫째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독립적 단계로 규정하지 않고 각 단계에 解消시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둘째 따라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조선에 적용할 경우 무엇보다도 삼국시대의 '아시아적 奴隷制社會'의 형성 발전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셋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조선사 적용은 아시아적 封建制社會의 特殊性 이해를 크게 啓發하였으며, 넷째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奴隷制社會 缺如를 주장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 등이었다(被告人「白南雲訊問調書 第五回」). 이로 보아 1935년 단계의 東岩은, 1931년 레닌그라드 대토론회에서 코발레프가 주장한 견해와 같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독자적 발전 단계가 아니라 아시아적 노예제사회, 아시아적 봉건제사회의 繼起的 展開에 해소시켜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아시아적 노예제사회에 선행하는 初階級社會(農業共同體) 단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가 古朝鮮에 대한 검토를 유보하고 三韓, 高句麗 등으로부터 노예제국가 형성을 설명하게 된 것이나 檀君神話를 高句麗 建國神話와 연결시킨 것 등은 모두 이에 연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한계는 민족주의 역사학, 특히 申采浩의 고대사 연구를 편협하게 이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외에 原始 氏族制를 해명하는 데 모건·엥겔스의 古代社會論과 言語學的 方法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 대담한 추론과 결론에의 비약에 비해 資料批判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도 주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의 많은 부분은 사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한국사 체계를 처음 개척하는 데 따르는 시대적 제약성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그의 後學들이 해결해야 할 학문적 과제였다.

현재 우리사회나 국제사회는 격변기에 놓여 있다. 그 변화의 본질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人間解放으로 나가는 역사의 발전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과거 역사적 경험과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일제하 延專學風을 새롭게 彩色하고 한국학술사의 새로운 地平을 개척한 東岩이 맑스주의자였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치열한 民族意識과 科學精神으로 탁월한 學問世界를 구축한 그의 삶의 자세일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학문적 과제는 이러한 知的 經驗을 현 한국사회의 時代的 課題와 관련하여 엄정한 과학적 정신으로 再吟味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參考文獻※

〈자 료〉

1. 感想錄.
2. 李順鐸外二人不起訴事件書類綴.
3. 被告人 白南雲訊問調書 第一回.
4. 被告人 白南雲訊問調書 第二回.

〈연구논저〉

5.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6. 白南雲,「科學發展의 歷史的 必然性」,『東方評論』2, 1932. 1.
7. _____,「朝鮮史觀樹立의 提唱」,『經濟研究』4, 1933. 2.
8. _____,『朝鮮社會經濟史』緖論, 1933. 9.
9. _____,「朝鮮經濟史의 方法論」,『新東亞』3－2, 1933. 12.

10. _____, 「理論經濟學의 再建」, 『中央』 2-10, 1934. 10.
11. _____, 「社會學의 成立 由來와 任務(完)」, 『朝鮮日報』, 1930. 8. 24.
12. 이병희, 「미완의 조선봉건사회론」 『역사와 현실』 12, 1994.
13. 洪性讚,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硏究會事件'」, 본서.